

다윗의 아버지 역할에 대한 성경적 상담 연구

A Biblical Counseling Study on King David's Role as a Father

진원화 이벤젤 크리스천 대학교

I. 서론: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현대 사회의 위기와 중년 남성의 갈급함

현대 한국 사회는 높은 경제적 수준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는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관계의 단절과 가족생활의 불안정은 40~60대 중년 남성들의 행복감을 급격히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타인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본질적인 ‘갈급함’을 지닌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어 가장 친밀한 공동체인 ‘가정’을 이루게 하였고, 이를 통해 세상을 다스리며 예배하는 자녀를 양육하게 하셨습니다. 즉,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완성하는 핵심 장소이자 인간 행복의 근원입니다.

2. 역기능 가정의 증가와 아버지 역할의 부재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가정은 이혼율의 급증과 저출산 심화로 인해 그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역기능 가족(Dysfunctional Family)’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역기능 가정은 갈등을 비밀로 숨기거나 자녀에게 부적절한 역할을 부여하며, 감정 표현을 억제함으로써 구성원들에게 깊은 심리적 상처를 남깁니다. 이러한 가정 붕괴의 중심에는 종종 ‘아버지 역할의 부재’ 혹은 ‘잘못된 역할 수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연구자 또한 가장으로서 경제적 책임은 다했으나 자녀와의 정서적 친밀감 형성에는 서툴렀던 경험을 고백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성경적 상담 방법론의 필요성을 통감하게 되었습니다.

3. 다윗, 성공한 왕이자 실패한 아버지

본 연구는 성경 속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하나인 ‘다윗’을 모델로 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이끌었으나, 가정 안에서는 자녀의 범죄에 무기력하게 대처하거나 징계를 회피하는 등 심각한 ‘기능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공적 영역에서는 영웅이었으나 사적 영역인 가정에서는 상처 입은 자녀를 위로하지 못하고 갈등을 방치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인생

후반부에 이르러 솔로몬을 말씀으로 훈육하며 다시금 '기능하는 아버지'로 회복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4.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3,000년 전 다윗의 삶을 성경적 상담과 가족체계 이론의 관점에서 재조명하여, 오늘날 자녀와의 관계 문제로 고통받는 아버지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중년의 위기를 지나 어떻게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신앙의 유산을 전수했는지 분석함으로써, 현대 기독교인 아버지들에게 실패를 넘어선 희망과 구체적인 상담 모델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학문적 성취를 넘어, 무너진 가정을 신앙 위에 바로 세우고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는 실천적 가이드를 제공할 것입니다.

II. 이론적 배경: 성경적 상담과 가족체계 이론의 만남

1. 성경적 상담의 이해와 목적

성경적 상담은 인간의 심리적 문제를 단순한 증상 완화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근본적인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일반 상담이 전문가와 내담자의 상호작용을 통한 행동 변화와 인격적 성장에 초점을 둔다면, 성경적 상담은 성경을 전제 조건이자 변화의 핵심 동력으로 삼습니다.

1.1. 개념 및 역사적 흐름

초기 기독교 상담은 심리학 이론을 도입한 '통합주의'가 주류였으나, 1970년대 제이 아담스(Jay Adams)가 '권면적 상담(Nouthetic Counseling)'을 제창하며 성경의 충분성을 강조하는 성경적 상담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후 데이비드 폴리슨과 폴 트립 등에 의해 인간을 '죄인인 동시에 고난받는 자'로 바라보는 보다 입체적인 관점으로 발전하였습니다.

1.2. 성경적 상담의 네 가지 목적

첫째, 영적 성숙: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내담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지도록 돕습니다(골 1:28). 둘째, 성경적 가치 적용: 사고와 행동을 성경적 관점에서 재평가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말씀을 적용하게 합니다. 셋째, 하나님과의 화목: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구하는 것이 치유의 핵심입니다. 넷째, 공동체적 회복: 내담자가 교회와 가정이라는 공동체 내에서 사랑과 섬김의 원칙을 실천하도록 격려합니다.

2. 머리 보웬(Murray Bowen)의 가족체계 이론

본 논문은 성경적 관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웬의 가족치료 이론을 도입합니다. 보

웬은 가족을 하나의 '정서적 단위'로 보고, 개인의 문제는 그가 속한 가족 시스템의 역동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2.1. 핵심 개념: 자기 분화(Differentiation of Self)

자기 분화는 보웬 이론의 근간으로, 개인이 자신의 감정과 사고를 얼마나 구별할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은 타인의 감정에 쉽게 휩쓸리거나(정서적 융합), 반대로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정서적 단절) 극단적 반응을 보입니다. 다윗이 자녀들의 범죄 앞에서 무기력하게 회피하거나 지나치게 감정에 매몰된 것은 바로 이 분화 수준의 문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2. 삼각관계와 세대 간 정서 전이

두 사람 사이의 불안이 높아질 때 제삼자나 문제를 끌어들이며 긴장을 해소하려는 '삼각관계'와, 부모의 미분화된 정서가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지는 '세대 간 전수' 개념은 다윗 가문의 비극(암논과 압살롬의 범죄)을 분석하는 중요한 틀이 됩니다.

3. 성경적 관점에서 본 아버지의 세 가지 직분

성경은 가정의 머리인 아버지에게 그리스도의 직분을 본받은 세 가지 역할을 부여합니다. 첫째, 왕으로서의 역할: 군림하는 권위가 아니라, 가족의 필요를 채우고 보호하며(관리), 앞서서 모범을 보이는(주도) 섬김의 리더십을 의미합니다. 둘째, 선지자로서의 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교육자의 역할입니다. 여기에는 사랑에 기반한 시의적절한 '훈계와 징계'가 포함됩니다. 셋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자녀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축복하며, 자녀가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돕는 중재자의 역할입니다.

4. 종합적 해석: 심리학적 통찰과 성경적 원리의 통합

이론적 배경을 종합하면, 아버지가 가정 내에서 직면하는 실패는 개인의 성격 결함뿐만 아니라 원가족으로부터 물려받은 정서적 상처(보웬)와 영적 권위의 상실(성경적 직분 수행 미흡)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회복은 자신의 내면적 상처와 낮은 분화 수준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상담 모델을 따라 '자비와 용서'의 태도를 회복하고, 왕·선지자·제사장으로서의 영적 리더십을 재정립할 때 가능해집니다.

Ⅲ. 아버지 다윗: 신앙의 거인, 가정의 미아(迷兒)

1. 아버지 다윗의 역할 분석: 성경적 직분을 중심으로

다윗의 삶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공적 삶과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의 사적 삶으로 극명하게 나뉩니다. 본 논문은 성경적 상담의 핵심 직분인 왕, 선지자, 제사장의

관점에서 다윗의 아버지 역할을 평가합니다.

1.1. 왕으로서의 역할: 공적 승리와 사적 무기력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완벽한 가까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라는 작은 신앙 공동체 내에서의 왕적 역할, 즉 '질서와 보호'를 책임지는 면에서는 실패를 보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왕으로서의 아버지는 자녀를 공순함으로 복종하게 하며(딤후 3:4), 하나님의 공의를 가정에 실현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맏아들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욕보였을 때, 왕으로서 마땅히 내려야 할 법적 조치나 공의로운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심히 노했다고 기록할 뿐,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삼하 13:21). 이러한 다윗의 '공의 없는 사랑(혹은 회피)'은 결국 압살롬이 사적으로 복수를 집행하게 만들었고, 이는 가문 내 살육과 반역이라는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1.2. 선지자로서의 역할: 영적 전수의 단절

선지자로서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신 6:6-7). 다윗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소통을 나눈 시편의 저자였으나, 그 깊은 영성이 자녀들에게 일관되게 전수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죄의 유혹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면시키고 훈계하는 선지자적 단호함이 부족했습니다. 다윗 스스로가 밋세바 사건이라는 치명적인 죄를 범한 이후, 그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칠 도덕적 권위를 스스로 포기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아버지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자녀 교육에서 선지자적 기능이 어떻게 마비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1.3. 제사장 및 용서하는 아버지로서의 역할

제사장은 가족을 위해 중보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고 죽었을 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라고 외치며 처절하게 슬퍼했습니다. 이는 자녀를 향한 끊임없는 부성애와 용서의 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 용서는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한 반쪽짜리였습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도 2년 동안이나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정서적 거리두기를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사장적 중보를 통한 진정한 화해가 아니라, 단순히 문제를 덮어두려는 회피에 가까웠습니다.

2. 다윗의 실패 원인: 심리학적·환경적 탐구

다윗이 왜 그토록 무기력한 아버지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보웬의 가족체계 이론과 그의 생애적 배경을 통해 네 가지 원인을 제시합니다.

2.1. 원가족에서의 소외와 '유기 불안'

다윗의 심리적 기저에는 어린 시절의 상처가 깊이 박혀 있습니다. 아버지 이새는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세우려 왔을 때 일곱 아들을 다 불렀으나 막내 다윗은 들판에 남겨두었습니다(삼상 16:11). 가족 안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던 다윗은 마음 깊은 곳에 '거절감'과 '인정 욕구'를 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처는 그가 성인이 되어 자녀들과 갈등을 겪을 때, 건강하게 직면하기보다는 관계를 끊거나 피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친밀한 아버지상'을 자녀들에게 제공하는 데 한계를 느꼈던 것입니다.

2.2. 일부다처제와 정치적 분주함

다윗의 가정은 여러 부인과 이복 형제들이 섞여 있는 복잡한 구조였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자녀들 사이의 경쟁과 갈등을 유발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왕으로서 끝없는 전쟁과 국정 운영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정치적 책임이 가정생활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고, 아버지가 부재한 공간에서 자녀들은 영적·정서적 결핍을 겪으며 역기능적으로 성장했습니다.

2.3. 낮은 '자기 분화'와 정서적 투사

보웬의 이론에 따르면 다윗은 낮은 자아 분화 수준을 보였습니다. 특히 압살롬의 반역 당시, 다윗은 왕으로서의 전략적 판단보다 아버지로서의 감정에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자녀의 문제를 자신의 상처나 죄책감과 분리하지 못하고 동일시함으로써, 공정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감정적 소용돌이에 휘말린 것입니다. 이러한 미분화된 정서는 암논의 성적 범죄가 다윗의 밋세바 사건과 닮아 있는 것처럼, '세대 간 정서 전이'를 통해 자녀들에게 비극으로 반복되었습니다.

2.4. 밋세바 사건 이후의 죄책감과 도덕적 위축

다윗의 아버지 리더십이 결정적으로 붕괴한 지점은 밋세바와의 간음 이후입니다. 자신도 간음과 살인(우리아 살해 교사)을 저질렀다는 죄책감은 자녀들의 비도덕적 행위 앞에 입을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암논의 성범죄나 압살롬의 살인을 보면서도 다윗은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올바른 징계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죄책감이 아버지의 거룩한 권위를 마비시킨 것입니다.

3. 다윗의 극복: 무기력한 아버지에서 사명 전수자로

본 논문은 다윗이 실패자로 끝난 인물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그는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러 성경적 상담의 원리인 '회개와 돌이킴'을 통해 아버지의 역할을 회복합니다.

3.1. 솔로몬을 향한 집중된 신앙 교육

다윗은 헤브론에서 낳은 자녀 양육에는 실패했을지 모르나, 예루살렘에서 낳은 솔로몬에게는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노년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며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왕상 2:2-3)는 구체적인 영적 지침을 남깁니다. 이는 과거에 자녀들을 방치하고 회피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명확한 '선지자적 교훈'의 회복입니다.

3.2. 사명의 공유와 성전 건축 준비

다윗은 자신이 짓고 싶었던 성전을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재료와 설계도를 준비해 줍니다. 이는 단순히 재산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사명을 공유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자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성경적 조력자'의 역할을 완수한 것입니다.

3.3. 하나님의 징계를 수용하는 태도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가는 수치스러운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삼하 16:11-12). 자신의 실패를 숨기거나 남 탓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한 이 모습은, 결국 그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가정의 신앙적 유산을 보존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4. 요약 및 시사점

다윗의 사례는 오늘날의 아버지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첫째, 과거의 상처와 죄책감이 현재의 아버지 역할을 마비시키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신앙이 좋은 사람도 원가족의 상처와 자신의 죄 문제로 인해 아버지 역할에 실패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실패했다라도 늦지 않았다는 희망입니다. 다윗이 말년에 솔로몬에게 신앙의 유산을 성공적으로 전수한 것처럼, 아버지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자신의 직분(왕, 선지자, 제사장)을 깨닫고 회복될 때, 가계에 흐르는 역기능적 고리는 끊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서며,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설정과 성경적 상담을 통한 내면의 치유가 필수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V. 연구 방법: 질적 사례 연구와 성경적 상담의 실제

1. 질적 사례 연구(Qualitative Case Study)의 채택

본 연구는 통계적 수치보다는 내담자의 깊이 있는 내면 변화와 복잡한 가족 역동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질적 사례 연구' 방법론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다윗이라는 성경적 모델이 현대 아버지들의 삶에 어떻게 투영되는지, 그리고 성경적 상담이 실제 관계 회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함입니다. 연구자는 객관성을 유지하면서도 내담자의 주관적 경험과 영적 성장을 세밀하게 관찰하는 해석적 접근을 시도하였습니다.

2. 연구 대상 및 상담 과정

연구를 위해 자녀와의 관계 문제나 아버지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명의 기독교인 중년 남성(내담자 C, K, H)을 선정하였습니다. 상담은 총 10~12회기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성경적 상담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적용되었습니다.

3. 성경적 상담 프로그램의 구성

본 연구의 상담 모델은 김순초(2024)의 ‘예수의 상담 기법’과 ‘성경 이야기 상담’을 결합하여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되었습니다. 초기(탐색기): 내담자의 기본 설문과 심리 검사(MMPI-2, TCI, SCT)를 통해 현재의 심리 상태와 원가족의 상처를 파악합니다. 가계도를 그리며 다윗의 가계와 자신의 가계를 비교 분석합니다.

중기(직면 및 재구조화기): 다윗의 이야기를 ‘서사적 읽기’ 방식으로 탐구하며, 자신의 실패를 다윗의 사례에 비추어 객관화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웬의 자아 분화 개념과 성경의 세 가지 직분(왕, 선지자, 제사장)을 학습하여 잘못된 역할 수행을 교정합니다.

후기(적용 및 회복기): ‘이마고(Imago) 대화법’과 미술 치료 등을 활용해 자녀와의 실제적인 소통을 연습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며 변화된 행동을 삶에 적용합니다.

4. 분석의 타당성과 윤리적 고려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상담 전후의 심리 검사 비교, 상담 일지, 녹취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삼각 측정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을 상세히 설명하고 자발적 동의를 얻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하는 등 연구 윤리를 엄격히 준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다윗의 사례가 현대의 상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유효한 도구임을 학술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였습니다.

V. 연구 결과: 다윗의 거울을 통한 현대 아버지들의 회복 사례

본 연구는 다윗의 아버지 역할 분석을 토대로 구성된 성경적 상담 프로그램을 실제 내담자들에게 적용하였습니다. 각 사례는 내담자의 배경, 다윗과의 유사성 분석, 상담을 통한 변화 과정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1. C 내담자의 사례: ‘침묵하는 아버지’의 정서적 회복

1.1. 내담자 개관 및 문제 분석

C 씨는 50대 중반의 가장으로, 경제적으로는 안정된 삶을 꾸려왔으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는 극심한 단절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심리 검사(MMPI-2, TCI) 결과, 그는

높은 통제 지수와 낮은 정서적 표현성을 보였습니다. 특히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엄격하고 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고 갈등을 회피하는 패턴이 고착화되어 있었습니다.

1.2. 다윗과의 유사성: ‘회피적 왕’과 ‘정서적 단절’

C 씨는 자녀의 문제 앞에서 침묵하거나 방 밖으로 나가버리는 특성을 보였는데, 이는 다윗이 암논의 범죄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회피적 태도’와 매우 흡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오는 ‘왕의 역할(공급과 관리)’은 잘하고 있다고 믿었으나, 자녀들의 내면을 돌보는 ‘제사장적 공감’은 전무했습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뒤에도 2년 동안 대면하지 않았던 다윗처럼, C 씨도 한 집에 살면서도 자녀와 정서적 단절 상태에 있었습니다.

1.3. 상담을 통한 변화: ‘직면’과 ‘공감’의 시작

상담 중기, C 씨는 다윗의 가계도와 자신의 가계도를 비교하며 자신의 침묵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를 직면했습니다. ‘이마고 대화법’을 통해 자녀의 말을 비판 없이 경청하는 훈련을 시작했고, 다윗이 말년에 솔로몬에게 자신의 비전과 사명을 조목조목 설명했던 것처럼 자녀들에게 자신의 연약함과 사랑을 말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녀들은 아버지의 침묵을 ‘무관심’이 아닌 ‘서툼’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가정 내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 K 내담자의 사례: ‘통제하는 아버지’의 영적 권위 회복

2.1. 내담자 개관 및 문제 분석

K 씨는 신실한 기독교인이자 사회적으로 사업가였습니다. 그러나 가정 내에서는 자녀들의 사소한 행동까지 간섭하고 자신의 기준에 맞추려 하는 권위주의적인 태도로 있었으나, 자녀들의 신앙적으로 섬기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2.2. 다윗과의 유사성: ‘보상 심리’

K 씨의 모습은 어린 시절의 결핍을 자녀의 성공을 통해 대리 만족하려 했습니다. 이는 자녀에게 ‘선지자적 교훈’이 아닌 작은 일에도 간섭하는 모습을 보였고, 자녀의 아픔에 주목하여 감정을 돌보지 못하였습니다.

2.3. 상담을 통한 변화: ‘청지기 의식’과 ‘축복의 제사장’

K 씨는 상담을 통해 아버지는 가정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청지기’임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말년에 성전 건축의 주도권을 솔로몬에게 넘겨주며 조력자로 물러났던 사례를 보며, K 씨도 자녀의 진로와 삶에 대한 통제권을 내려놓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는 자녀를 훈계하기에 앞서 매일 밤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주는 ‘제사장적 축복’을 실천했습니다. 아버지가 통제를 멈추고 모범을 보이는 영적 지지자로 변하자, 자녀는 스스로 신앙의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부녀간의 관계는 존경과 신뢰의 관계로 재정립되었습니다.

4. 종합 분석 및 상담 결과의 요약

세 사례의 분석을 통해 도출된 공통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아 분화와 원가족 상처의 치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세 내담자 모두 원가족으로부터 물려받은 역기능적 패턴이 자녀 관계에 투사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거울삼아 자신의 내면을 객관화했을 때, 내담자들은 비로소 감정적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자기 분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둘째, 성경적 세 직분(왕, 선지자, 제사장)의 균형이 회복되었습니다.

회피하던 아버지는 ‘보호와 관리(왕)’의 책임을, 통제하던 아버지는 ‘사랑의 훈계(선지자)’를, 죄책감에 빠졌던 아버지는 ‘중보와 축복(제사장)’의 역할을 되찾았습니다. 이는 성경적 상담이 아버지의 정체성을 재확립하는 데 탁월한 도구임을 입증합니다.

셋째, 예수 상담 모델의 실제적 효용성입니다.

이름 부르기, 비유를 통한 재해석, 공감과 경청 등의 예수 상담 기법은 내담자들이 자녀와 소통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단순한 심리적 위로를 넘어 하나님의 주권 아래 가정을 세우려는 영적 동기가 부여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 결과는 다윗의 실패와 극복의 서사가 현대 아버지들에게 강력한 정서적 유대감과 변화의 모델을 제공함을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신의 영적 직분을 깨달을 때, 가계에 흐르는 역기능적 고리는 끊어지고 새로운 신앙의 유산이 흐르게 된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VI. 결론 및 제언

1. 연구 결과의 종합적 결론

본 연구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생애를 성경적 상담과 보웬의 가족체계 이론으로 분석하여, 현대 기독교 아버지들이 겪는 역할 실패의 원인과 그 극복 방안을 탐구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다윗의 아버지 역할 실패는 단순히 개인의 성격 결함이 아니라 원가족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처(거절감), 낮은 자아 분화 수준, 그리고 죄책감으로 인한 영적 권위의 상실에서 기인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생 후반부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솔로몬에게 신앙의 유산을 성공적으로 전수하는 '기능하는 아버지'로 거듭났습니다. 이는 현대의 아버지들에게도 과거의 상처와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충분히 치유되고 역전될 수 있다는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2. 연구의 핵심 성과: 아버지의 세 가지 영적 직분

실제 상담 사례(C, K, H)를 통해 다윗의 실패 모델이 현대의 기독교 아버지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성경적 상담 프로그램은 내담자들이 자신의 역기능적 패턴을 인식하게 하였고, 다음의 세 가지 직분을 회복하게 함으로써 관계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왕의 직분: 군림이 아닌 섬김과 돌봄으로 가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함.

선지자의 직분: 감정적 통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훈계하고 교육함.

제사장의 직분: 자녀를 비난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축복하는 영적 통로가 됨.

3. 실천적 제언 및 향후 과제

본 연구는 현대 기독교 가정의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남깁니다.

첫째, 아버지 교육의 전문화: 교회와 상담 현장에서 다윗의 사례와 같은 성경적 모델을 활용한 '아버지 학교'나 '부모 상담 프로그램'이 더욱 체계적으로 보급되어야 합니다. 둘째, 자기 성찰과 자아 분화: 아버지는 자녀를 변화시키려 하기 전,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감정적으로 독립된 '자기 분화'를 이루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지속적인 영적 공동체 형성: 일회성 상담에 그치지 않고, 아버지들이 서로의 연약함을 나누고 중보할 수 있는 소그룹 공동체 내에서의 지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4. 맺음말

본 연구는 완벽한 아버지가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처럼 실패할 수 있는 인간임을 인정하고, 'Wonderful Counselor'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구할 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됨을 역설합니다. 본 논문이 자녀와의 관계 단절로 고통받는 이 땅의 아버지들에게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의 비전을 회복하는 소중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